

중국의 방직 산업 -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면서도

금융 환경 변화에는 약해

이제까지의 10년 동안, 중국의 섬유 산업의 판매는 연 평균 10.67%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 판매도 18.8%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산 섬유 어패럴 제품의 점유율도 연 8.9%의 페이스로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윤율이 3.5% 내외로 주춤하고 있어 경제 규모는 크지만 규모의 경제에서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중국방직품진출구상회(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에 의하면, 베이징에서 7월 22일에 개최된 최초의 중국 산업 안전 포럼에서 2005~2006년 중국 방직 산업 안전 레포트를 보고 하였다.

이 레포트는 중국 섬유 산업의 현상을 대체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약점으로서 금융, 정책, 시장 환경 등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을 지적하고, 특히 금융 환경의 변화에 약하며, 자본 효율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이 레포트는 수출 진흥책의 하나이기도 한 단기 대부 우대책이 업계 전체의 자본 효율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섬유 기업은 최근 3년에 8.2% 늘었는데, 그 일부는 국제 업무에 대응할 만한 능력도 없고, 관리 수준도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내의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융자 제도도 불안전하며, 은행의 단기 자금 융자는 중소 기업에게 아직도 매우 어렵다. 1만여 회사의 신규 참가조와

10만여 중소기업의 효율의 낮음은 섬유 산업 전체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산업 집중도, 연구 개발비, 외자계 브랜드의 지배율의 3개 지표에 대하여도 그 차는 뚜렷하다고 한다.

2004년말 현재의 중국 섬유 어패럴 기업의 기업 수는 13만 9천개 사인데, 그 중 98%의 기업은 외국 브랜드의 생산을 청부받고 있다. 외자계 브랜드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높다. 베이징에 있는 35개의 중고급품 시장에서는 수입 브랜드품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급품 시장에 이르러서는 수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상하이 회해로(淮海路)에서 팔리고 있는 1,159건의 어패럴 브랜드 중에서 60%는 수입 브랜드임이 실상이다.

♣